일반논문 (45~70쪽)

『신화를 삼킨 섬』에 나타난 아기장수 신화의 소설적 전유 방식*

이주미**

1. 머리말
2. 결정적 세계와 도피 메커니즘
3. 권위주의적 사회의 가학 본성과 타자의 자유의지
4. 신화와 굿의 소설적 함의
5. 맺음말

1. 머리말

신화는 인간 삶의 메타포로서, 인간의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경험과 사고를 기반으로 생성된다. 오랜 시간 현실적 압력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정신적 틀로 기능해온 신화는, "이성적 합리적 사유체계나 기호체계로 포착되지 않는, 그러나 인간존재가 근원적으로 경험한 것이며 실재한다고 믿는 것들"[1]이기 때문에 새로운 현실에 개입하여 인간의 삶을 추동

* 이 논문은 2015년도 동덕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동덕여자대학교

1) 오세정(2007), 「한국 신화에 나타난 변신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16, 한국고전연구회, 70쪽.

하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한국 신화 가운데 '아기장수 신화'를 소설의 미학적 틀로 전유하고 있는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은 신화의 이미지를 우리의 역사와 현실에 중첩시켜 그 의미를 생각해보게 하고 있다. 『신화를 삼킨 섬』은 '서울의 봄'을 시간적 배경으로, 제주를 공간적 배경으로 하여 이 땅에 반복되어 온 비극적 역사가 어떤 과제를 남기고 있는지 탐색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 대한 기왕의 논의를 살펴보면, 이 소설이 4.3과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그 역사를 생생하게 포착한 것이 아니라 제주의 신화라는 외적인 원형에서 구하며 굿이라는 제의의 민중문화적 의의를 환기하면서도 "우리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어떤 적극적이고도 구체적인 삶의 지표가 제시되고 있지 않다"[2]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4.3이 제주의 문제만이 아닌 전국적인 그것으로, 그리고 일국적 경계를 벗어나 제3세계적 모순을 보이는 세계의 그것으로 심화, 확대의 길을 모색해야 된다는 새로운 문학적 과제"[3]를 제시하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신화와 굿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속성을 작품 해석에 적용하여 "소설 전체는 신화적 이미지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통해 역사적인 기억의 형성, 치유와 해원의 방식, 용서와 화해의 가능성을 점층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이어서, 서사의 흐름은 매듭-씻김-풀이의 굿마당의 이미지로 나타난다"[4]고 한 견해는 작품의 창작의도를 비교적 충실히 이해하려고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작품이 다룬 역사적 소재에 주목하여 해당 역사가 후대에 남긴 상흔에 집중한 논의가 많이 눈에 띄는데,

2) 정흥섭(2003), 「이야기로 풀어낸 역사와 신화화된 이야기 – 황석영의 「손님」과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 『실천문학』, 실천문학사, 312-332쪽 참조.

3) 고명철(2002), 「이념의 장벽을 넘어선 4.3소설의 새로운 지평」, 『비평의 잉걸불』, 새미, 328-347쪽.

4) 한순미(2009), 「역사적 물음을 구조화하는 이미지의 위상학 –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39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37쪽.

예컨대 4.3의 기억이 지배 권력에 의해 어떻게 매듭지어졌는지를 후체험 세대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는가 하면[5], 제주도의 특수성을 객관화하는 '경계인'의 시각으로 관주도 사업의 허구성이 폭로되는 현상에 주목하기도 하였다.[6] 그리고 '섬 외부인'으로 간주되는 정요선, 고종민을 관찰 주체로 하여 섬의 대립적 양분을 조장하는 외부 개입의 본질을 살피는 동시에 '역사 씻기기'에 대한 섬사람들의 무관심을 사후적으로 형성된 적극적 저항의 담론 방식으로 분석하기도 하였다.[7] 이들 논의에 동원된 '후체험 세대', '경계인', '섬 외부인' 등은 지금까지 이청준 작품 분석에 자주 활용되어 온 다면적 시선, 관찰자 시선의 자장 안에 머물러 있는 듯한 인상을 주기는 하나 작품의 주제를 명확하게 해명하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신화를 삼킨 섬』의 「작가의 말」에서 이청준은 작품의 창작 취지를 "이 땅에 삶을 점지 받고 태어난 보통사람들의 진정한 소망과 그를 지켜 나가기 위한 끈질긴 지혜의 힘을 그리고 싶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땅에 삶을 점지 받고 태어난'이란 인간 삶의 기초가 선택된 것이기보다는 결정된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사람들의 진정한 소망과 그를 지켜 나가기 위한 끈질긴 지혜의 힘'이란 결정된 운명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자유의지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신화라는 상상적 진실이 현실에 미치는 힘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 세계 속에서 어떻게 자유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지 『신화를 삼킨 섬』을 통해 그 구체적인 방략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통상

5) 권귀숙(2004), 「기억의 재구성 과정 : 후체험 세대의 4.3」, 『한국사회학』제38집 1호, 한국사회학회, 107-130쪽 참조.

6) 고인환(2006),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에 나타난 탈식민성 연구 – 4.3항쟁의 전용양상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29, 한국언어문화학회, 121쪽.

7) 조명기(2010),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낙원의식과 로컬리티 – 「이어도」「당신들의 천국」『신화를 삼킨 섬』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73, 한국언어문학회, 351쪽.

적인 의미의 '자유'는 모종의 억압이나 구속이 없는 상태이거나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있음을 뜻한다. 이 글에서는 좀 더 철학적인 의미의 자유로서, "나의 의지작용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힘을 뜻하는 적극적인 개념"[8]을 작품 분석의 기초로 삼고자 한다. "삶의 압력, 현실의 압력이 가중되면 이걸 견뎌내려는 정신의 틀을 만드는 것, 이것이 문학 활동이고 문학적 상상력"[9]이라고 한 이청준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이 논의에서는 작가가 절망적인 세계 속에서 어떻게 인간의 희망을 그려내고 있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2. 결정적 세계와 도피 메커니즘

무속신화의 많은 주인공들은 치명적인 결함이 있거나 여러 가지 부정적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운명을 타개할 기회를 얻어 신격을 획득한다. 신화에서 운명을 바꿀 기회란 대체로 이질적 공간의 이동으로 구체화되고 신화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그 신성한 공간에서 시련을 극복하고 과업을 완수하여 자신의 위상을 바꾼다. 가령 가부장제 사회에서 딸로 태어나 버림받은 바리공주는 다양한 타계여행을 거치면서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였으며 당금애기나 할락궁이도 각각 남편과 아버지가 있는 신성 지역으로 이동하여 시련을 극복함으로써 운명을 타개한다. 무속신화 주인공들의 위상이 신격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범상인들이 결코 행할 수 없는 다른 세계로의 이동이 필수적이다.[10] 이에 비해 아기장수 신화에는

8) 김효명(2008), 「결정론과 자유」, 『철학사상』28,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291-313쪽, 297쪽.

9) 권오룡 엮음(1999), 「이청준 권오룡 대담 : 시대의 고통에서 영혼의 비상까지」, 『이청준 깊이 읽기』, 문학과 지성사, 25쪽.

10) 오세정(2006), 「한국신화의 원형적 상상력의 구조」, 『한민족어문학』49, 한민족어문

과업 수행의 절차가 거의 생략되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아기장수는 본래 탁월한 능력을 타고났으나 미천한 가정에서 태어나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비참하게 죽는다. 게다가 자신의 운명을 타개할 기회조차 끝내 얻지 못한다. 이러한 비극적인 신화가 이청준의『신화를 삼킨 섬』에 액자 형식으로 배치되어 있다. 미천한 가정에서 신이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장수가 환란을 염려한 부모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부분이 프롤로그에, 부활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아기장수가 다시 한 번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이 에필로그에 담겨있다. 프롤로그에 삽입된 신화의 내용을 살피면 억울하게 죽은 아기장수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나 무덤 속의 기행은 다음과 같이 소략하게 기술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 그때 아이의 아비는 원통하게도 자신의 자식이 하루쯤을 더 못 기다려 눈앞에서 두 번째로 거푸 죽어가는 것을 보았다.
>
> 갈라진 바위 속에서는 죽은 줄만 알았던 아이와 함께 묻어준 곡물 낟알들이 모두 뜻밖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아이는 우람한 장수의 모습으로 바뀌어 무릎을 꿇어앉은 채 방금 고개를 반쯤 쳐들어 올리다 만 모습이었고, 자루 속의 콩과 팥알 참깨 알들은 수많은 장졸과 군마 무기로 변하여 무예와 전술을 열심히 익히는 중이었다. 하지만 졸지에 바위가 갈라지고 세찬 햇빛과 바깥바람이 덮쳐들자 장졸들은 일시에 움직임을 멈추고 힘없이 스러져 갔고, 장수의 모습을 하고 꿇어앉은 아들은 반쯤 쳐들린 머리와 무릎을 마저 펴 올려 일어서지 못하고 하늘이 무너지듯한 큰 한숨소리와 함께 그대로 무너져 내려앉으며 주위를 시뻘건 핏물로 물들였다.
>
> 그리고 그때 어디선지 다시 슬픈 말울음 소리가 세 번 울리더니 갈라진 용마 바위 뒤쪽에서 눈부신 날개를 단 용마 한 마리가 불쑥 솟구쳐 올라 뒷산 너머 하늘로 멀리 사라져갔다. 새로 태어날 장수를 태우러 왔다가 주인을 만나지 못한 용마였다.(『신화를 삼킨 섬』, 204쪽)

학회, 247쪽 참조.

아기장수 부모가 아이를 바위틈에 생매장하고 돌아온 후 백날을 하루 앞둔 날 군졸이 몰려와 아비를 앞세워 무덤을 찾아가는데 이 과정에서 타계 여행에 해당되는 것은 간단히 약술된 석 달 아흐레 동안의 무예와 전술의 연마과정뿐이다. 무속신화의 주인공들은 주로 공간 이동을 통해서 인간적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존재 자체의 신성성이 결핍되거나 약한 인물일수록 타계 여행이 강조된다는 점을 상기해보면[11] 아기장수는 애초부터 내적 자질의 결핍이 강조된 인물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오히려 아기장수는 날개를 달고 태어난 순간부터 신성성을 갖춘 인물이라서 타계 여행을 통한 시련 극복이 불필요한 캐릭터이다. 다만 처음부터 꿈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결정된 운명이라 아기장수의 노력 여하에 따라 삶의 양태가 달라지지 않을 뿐이다. 요컨대 아기장수 이야기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성격 개변이나 성장, 완성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아니라 인물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 환경적 요인인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염두에 두고 보면, 아기장수의 성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은 '비범하다'는 점이라기보다 '자유가 박탈되어 있다'는 점임을 알 수 있다. 어떤 존재에게 자유가 문제시되는 것은 그 자유가 자기 소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하나의 사회구성체 안에서 자유가 문제시되는 계급은 대개 피지배계급이다. 피지배계급으로서는 자유와 삶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주어진다면 그 상황 자체가 곤경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피지배계급은 자유를 선택하면 자유와 삶을 동시에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애초부터 자유는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12] 따라서 미천한 가정에서 출생한 데다 비극적 죽음마저 예정되어 있는 아기장수는 자유가 박탈되어 있는 소외 계급을 상징하는데, 이런 아기장수의 존재는『신화를 삼킨 섬』에서 섬사람들의 처지를 대변한다.

11) 오세정(2006), 위의 글, 255쪽 참조.

12) 이종영(1996),『가학증, 타자성, 자유』, 백의, 37쪽 참조

아기장수와 마찬가지로『신화를 삼킨 섬』의 추심방 아들 만우도, 변심방의 딸 금옥도, 만우와 금옥이 섬을 나가 살기를 바라는 변심방도, 만우와 금옥을 신자식으로 짝짓고 싶어 하는 추심방네도 모두 운명의 굴레에 갇힌 인물들이다. 외지에서 온 정요선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신화를 삼킨 섬』의 내부서사는 정요선과 유정남 일행이 조복순 일행을 따라 제주 배를 타기로 작정한 날 제주가 아닌 녹동 쪽으로 뱃길을 잡아타면서 시작된다. 죽어서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한센병 환자들의 영혼이 안치되어 있는 만령당에 들르기 위해서였다. 이들 행보가 남긴 궁금증은 소설의 끝에서 한센병을 앓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소록도를 떠날 수 없는 운명이었음을 아들 정요선이 알게 되는 것으로 해소된다. 이처럼 소설의 등장인물 대부분이 운명을 타개할 길이 막힌 아기장수의 분신들인데, 이는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제주 섬에 갇혀 운명을 함께 해야 했던 4.3 희생자들의 사정과 고스란히 겹친다.

> 요선은 문득 그 해정리 변신당 집 계집아이의 일이 다시 떠올랐다. 그리고 이어 그 비좁고 음습한 느낌 속에 요선은 이제 그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다른 섬사람들에게까지 생각이 미쳐갔다. 더러는 그렇게 다른 세상으로 나가는 문이 꼭꼭 닫힌 섬에 갇혀 살다 남다른 한을 남기고 간 죽음도 많았으리라는 생각에 지레 진저리가 쳐지기까지 했다.(『신화를 삼킨 섬』, 45쪽)

『신화를 삼킨 섬』에서 이청준은 결정적 세계에서 목격할 수 있는 신경증적 증상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다. 관 주도의 '역사 씻기기 사업'을 둘러싼 제주민들의 비정상적인 반응이 그것이다. 청죽회와 한얼회로 갈라진 제주민들은 위령과 해원이라는 사업 취지는 망각한 채 이름 없는 희생자들을 서로 자기 쪽 자리에 옮겨 두려는 유골 쟁탈전을 벌이며 자기 쪽 희생자 수 늘리기 다툼에 열을 올린다. 이들의 행태는 일종의 마조

히즘적 증상으로 자아를 상실한 채 지배자의 논리에 편입됨으로써 피상적인 방식으로나마 갈등상황을 봉합하려는 강박 증세에 다름 아니다. 공동체의 결속이 와해된 환경에서 야기되는 이러한 마조히즘적 증상을 에리히 프롬은 도피 메커니즘으로 해석하며, 인간은 자신에게 안정감을 부여하던 일차적 관계를 잃게 되면 "비록 개인으로부터 자유를 빼앗는다 할지라도 불안으로부터의 구원을 약속하는 인간과 외부 세계에 대한 복종으로 이들과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도피하고자 하는 강력한 성향이 생겨난다"[13]고 설명한 바 있다. 아기장수 신화에서도 아기장수를 직접 죽인 것은 관군이 아니라 아기장수의 부모이다. 아기장수 부모는 용마바위에 오랜 치성을 드린 끝에 옥동자를 낳았으나 남다른 징후를 지니고 태어난 아기가 뒷날 큰 영웅 장수로 자랄 것이 염려되어 일찌감치 후환거리를 없애기로 작정하고 아이를 죽인 것이다. 이 때 아기장수 부모의 선택은 합리적 이성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렵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지배자는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통제되고 있을 때 불안을 느낀 나머지 자유를 포기하고 삶을 택한다. 지배자의 논리에 편승해 버린 아기장수의 부모, 그리고 『신화를 삼킨 섬』에서 청죽회와 한얼회로 갈라져 죽은 넋들까지 편을 가르는 섬사람들의 강박적인 행동은 다만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고통을 제거하려 한 것일 뿐 사태의 본질적 치유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3. 권위주의적 사회의 가학 본성과 타자의 자유의지

『신화를 삼킨 섬』에서 이청준은 제주 섬에 전해 내려오는 김통정·김방경 설화를 환기하며 제주 섬이 안고 있는 불행의 근원을 좀 더 면밀히

13) 에리히 프롬, 원창화 역(2008), 『자유로부터의 도피』, 홍신문화사, 37쪽.

살핀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삼별초의 수장으로 관군의 세력에 밀려 제주로 건너온 외래 장수 김통정은 몸에 비늘과 날개를 달고 태어난 아기장수였다. 비범하게 태어났으나 어려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삼별초의 우두머리가 된 그는 백성을 위해 관군과 싸우다 죽어 당신으로 모셔진다. 그러나 훗날 김통정은 김방경 설화에서 제주에 해상왕국을 지어 제주 민중을 다스리며 세금과 노동력을 착취한 외래 지배자로 그 위상이 추락한다. 변신술에 능한 김방경은 새와 모기로 변신하여 비늘 틈새로 김통정의 목을 쳐 죽이고 만다. 이러한 김방경 장군을 섬사람들은 새로운 영웅으로 받들고 당신으로 모시게 되는데, 김방경 역시 섬의 새로운 지배 권력자가 되어 민중의 소망을 좌절시킨다. 김통정·김방경 설화에서 두 장수는 결과적으로 똑같은 지배 권력자에 불과했으며 섬사람들은 가짜 구세주에 속아 무고한 피땀만 흘렸던 것이다.

김통정·김방경 설화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은 권위주의적 사회의 가학 본성이다. 김통정·김방경이 섬사람들의 환심을 샀다가 배신했듯이 지배 권력자의 가학 본성은 타자에 대한 호의나 배려로 위장되는 경우가 많다. 지배 권력자의 착취적인 성향을 은폐하기 위해 자주 인용되는 합리화 방법은 '나는 너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너에게서 빼앗아도 된다'[14]는 것이다. 『신화를 삼킨 섬』의 내부 서사에도 권위주의적 사회가 가학증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세밀하게 그려지고 있다. 소설의 내부 서사는 1980년 5월 광주 민주항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세 달 동안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로, 신군부 세력이 4.3 희생자들의 넋을 씻어준다는 명목으로 전국에 걸쳐 '역사 씻기기 사업'을 추진한다는 정황이 담겨 있다.

14) 에리히 프롬(2008), 위의 책, 123쪽.

> 이를테면 그로 하여 그간 역사에 불의한 홀대를 받아온 선대 원혼들에 대한 국가적 위무와 나라의 새롭고 바른 역사, 나아가 평화와 안녕을 명분으로 내세워 군부 정권에서 이반된 민심의 혼란을 수습하고 비정상적 권력의 정통성을 마련해보자는 속셈에서일 터였다.(『신화를 삼킨 섬』, 61쪽)

사업의 명분은 해원 굿의 성격을 지녔지만 그것은 박정희 암살 후 정국의 불안을 잠재우고 위태로운 권력을 지키려는 방책의 하나로 계엄지원 배후 세력기관이 궁리해낸 기만적인 연극에 불과했다. 관주도의 '역사 씻기기 사업'은 사실상 신군부 세력이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군부 세력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는 지팡이 사내 무리의 남행 횃불 행렬이 확산되자 역사 씻기기 사업이 중단되어버릴 정도로 종교적 의식으로서의 굿의 실행은 부수적인 것이었다. 진정성이 결여된 이 역사 씻기기 사업은 이청준이 「떠도는 말들」「자서전들 쓰십시다」「몽압발성」 등에서 문제삼아온 '말과 실체의 연관성이 상실된' 언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청준은 김통정·김방경 설화에서 지배자들이 섬사람들과 운명을 함께할 수 없는 외래장수였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이 지점에서 당면한 현실의 문제점을 명확히 정리한다. 설화에서 섬사람들은 외래 장수에게 희망을 걸었기 때문에 낙원 건설에 실패했는데, 이미 『당신들의 천국』에서 이청준은 인간 사회에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에 자유와 사랑에 기초한 화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한 바 있다. 그리고 인간 사회에 건설될 천국은 '당신들'의 천국이 아니라 자생적 운명에 의거한 '우리들의' 천국이 되어야 함도 이미 역설한 바이다. 김통정·김방경 설화를 환기시킴으로써 이청준은 역사적 매듭을 푸는 주체는 섬사람들 자신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재삼 강조한다. 불행한 역사가 남긴 상흔을 치유하고 새로운 역사를 개척할 주체는 외부의 권력이 아

니라 무고한 희생자들의 넋을 씻겨온 섬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 용두 마을의 추 심방네가 오로지 그들만을 씻겨 왔듯이 이 섬사람들은 그래 그 백골들을 어느 한쪽의 영웅이나 구원자로보다 이 섬사람들의 지난한 삶의 운명을 함께하는 이름 없는 백성으로 해원시켜 보내고자 한얼회나 청죽회 어느 쪽을 위해서도 결코 입을 열고 싶어 하지 않는지 몰랐다. 그 두 자루의 무기류 소유자를 제외하면 그 백골들은 무엇보다 사실이 무장대나 토벌대 어느 쪽에서 속할 수 없는, 속해서도 안 되는, 오히려 그 영웅적 다툼의 빈 명분만을 지고 간 무고한 섬 백성들이었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름 없는 그들의 혼백을 거두고 그 유혼을 씻길 일 역시 이름 없는 이 섬사람들, 비운의 아기장수와 당신들을 거두어 이승의 고달프고 허기진 삶을 더불어 의지하고, 그들의 이름으로 오랜 세월 이 섬을 씻기고 또 씻겨온 토박이 심방들 오로지 그들뿐인지도. 또는 그들뿐이어야만 하는지도.(『신화를 삼킨 섬』, 148-149쪽)

철학자이자 인지과학자인 대니엘 데닛은 결정론과 자유의지의 양립을 주장하며 결정론적 세계야말로 자유의지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고 논증한 바 있다.[15] 이때 '결정론'은 결과가 결정되어 있으므로 예측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우주의 역사가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피할 수 없다고 보는 '운명론'과는 구별된다. 데닛의 주장에 따르면, 동물은 '상황행동기계'에 불과하지만 인간은 결과를 예측하고 가치 있는 결과를 선택하기까지 하는 '선택기계'[16]이며 이후 정보로서 결과의 원인을 유추하는 정보생산기계로 진화했다고 한다. 인간이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정보 수집 능력과 그것의 해석 능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보면 『신화를 삼킨 섬』에서 의미의 중

15) 권수현(2008),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대립 해소를 위한 방법론적 대안 : 데닛의 양립론을 중심으로」, 『철학연구』35집, 고려대 철학연구소, 50-51쪽.

16) 대니얼 데닛, 이희재 역(2006), 『마음의 진화』, 사이언스북스, 240쪽.

첩이 이루어지는 광주 5.18, 제주 4.3, 김통정·김방경 설화는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게 하는 정보적 자료로 간주할 수 있다. 간단히 나열한 역사적 경험으로만 미루어 보더라도 미래의 전망은 밝지 않다. 이렇게 패배가 결정된 비운의 환경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할 방도를 찾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적 과제인 것이다.

작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과제를 소설로 풀어내야 하는 상황은 패배할 현실을 앞에 두고 심문관 앞에서 거짓진술을 추궁 당하는 상황에 다름 아니다. 이청준은 「소문의 벽」에서 미치광이 박준의 입을 통해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 마치 그 얼굴이 보이지 않는 전짓불 앞에서 일방적으로 나의 진술만을 하고 있는 듯"[17]하다고 술회한 바 있다. 작가로서의 정직성이나 진실이 훼손되기 쉬운 정황이었으므로 소설 속 G는 정직한 진술을 실패한 채 유죄를 선고받는다. 그러나 『신화를 삼킨 섬』에서 이청준은 「소문의 벽」의 박준이나 G와는 달리 제3의 선택지를 택한다. 신군부가 4.3의 역사적 기억을 형식적으로만 봉합하려는 과정에서 섬을 대립적으로 양분하는 결과를 낳았지만 이청준은 이 속에서 양측을 모두 부인하는 전면적 부정의 정서를 발견한 것이다. 한얼회와 청죽회로 대표되는 정치적 단체가 도피 메커니즘에 매몰된 병리적 행동 양상을 보였다면, 관 주도의 위령 굿을 거부하며 '양비론적 대립의 길'[18]을 선택한 이들은 지배 권력의 영향권을 벗어나 있어 두 정치 단체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행보를 보인다.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19]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권위주의적 사회의 지배자는 타자를 대상화하고 사물화하

17) 이청준(1973), 「소문의 벽」, 민음사, 351쪽.

18) 이청준(2003), 『신화를 삼킨 섬』, 열림원, 197쪽.

19) 주지하는 바와 같이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서 주인은 노예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수 없다. 주인에게 굴복한 노예에게서 증오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증오는 노예의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타자가 살아있는 한 타자의 자유를 완전히 소유할 수 없다. 바로 타자의 '초월' 때문이다.[20] 『신화를 삼킨 섬』에서 추심방을 위시하여 제3의 선택지를 택한 섬사람들은 동일자를 초월한 타자, 즉 스스로 자유의지를 증명한 존재들인 것이다.

4. 신화와 굿의 소설적 함의

『신화를 삼킨 섬』의 프롤로그에 나타나 있는 아기장수의 탄생과 죽음에 얽힌 일화는 전국에 광포되어 있는 아기장수 신화와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야기에서 아기장수가 재기에 성공하지 못하고 죽는 것으로 끝나거나 아기가 죽은 후 용마가 뒷산이나 마을 어귀에서 사흘 동안 돌다 죽거나 용마가 용소에서 나와 주인을 찾아 헤매다가 용소에 빠져 죽어 지금도 그 흔적이 있다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데 반해[21], 『신화를 삼킨 섬』의 에필로그에는 후일담 형식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다. 섬사람들은 더 이상 가짜 영웅에 속지 않으려고 아기장수도 용마도 기다리지 않게 되지만, 언제부턴지 다시 아기장수와 용마의 출현을 기다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작가는 '이야기 속의 꿈과 기다림이 없이는 아무래도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22]이라고 자조적인 뉘앙스의 부언을 남기고 있지만, 패배를 인정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끝내 기다림을 선택한 섬사람들의 행위는 미흡하나마 자발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자발성은 심리적으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뜻하기 때문이다.[23] 특히 해당 대목은 작가가 운명

20) 이종영(1996), 앞의 책, 115-117쪽 참조. 초월이란 타자가 사물화 되기를 거부하는 태도를 말한다. 타자를 죽이지 않는 한 타자의 초월적 자유는 억압될 수 없다.
21) 최래옥(1989), 「아기장사 전설의 연구」, 민족학회 편, 『설화』, 교문사, 282쪽 참조
22) 이청준(2003), 『신화를 삼킨 섬』, 앞의 책, 205쪽.

공동체의 존재를 의식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후부터 아기장수도 용마도 더 이상 기다리려고 하지 않았다. 더 이상 그 영웅 장수나 용마의 희망에 속고 싶지 않아서였다.
> 하지만 사람들은 끝내 그 구세의 영웅 이야기를 잊지 못했고, 언제부턴지 그 아기장수와 용마가 다시 태어나기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 속의 꿈과 기다림이 없이는 아무래도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신화를 삼킨 섬』, 205쪽)

이청준 작품에서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지게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이후라 할 수 있다. 작품 활동 초기에 1960년 4.19의 경험을 소설의 정서적 배경으로 녹여냈던 이청준은 초기 작품에서 문제적 개인의 실존적 상황에 관심을 두었고, 문제적 주인공은 자신을 패배시킨 현실에 대개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자기파괴적인 양상을 보이는 데 머물렀다. 그러나 1980년 광주항쟁 이후 이청준의 작품은 "개인을 감싸고 있는 공동체의 운명과 장래의 비전을 발견하려는 시도이며 새로운 세계에의 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24]으로 평가될 만큼 뚜렷한 변화를 보인다. 초기 소설의 주제가 개인의 '광기' '기벽'과 같은 증상이나 '복수'와 같은 개인적 차원의 대응으로 현실의 병폐를 드러내는 방식이었다면, 이제 그것은 '승화'나 '해방'으로 전환된 것이다. 예컨대 『신화를 삼킨 섬』에서는 예의 승화나 해방을 위해 작가가 동원한 장치가 바로 신화인 것이다.

소설의 중심인물이 개인에서 공동체로 확장되면서 작가의 관심사가 '복수'에서 '용서'로 전환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변화라 할 것이다.

---

23) 에리히 프롬(2008), 앞의 책, 215쪽.

24) 임환모(2009), 「이청준 소설의 지형도」, 『현대문학이론연구』37, 현대문학이론학회, 126쪽.

『신화를 삼킨 섬』에서 개별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공동체의 용서를 은유적으로나마 실행할 수 있는 인물은 섬 심방들이다. 이들의 굿은 곧 용서와 치유를 위한 의례이기 때문이다. 다만 샤먼의 용서는 종교적 차원의 용서일 뿐 인간적 차원의 용서를 대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청준은 80년대 중반에 정치가들이 자신의 권력 창출을 위해 민족 화합이라는 미명 아래 광주 학살 피해자들과 상관없이 용서를 주장하는 장면을 목도하며 「벌레 이야기」라는 작품을 발표한 바 있다.[25] 이 작품은 인간적 차원의 용서란 무엇인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것이었다. 「벌레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이청준은 인간적 용서와 종교적 차원의 용서를 구분하면서, '종교적 차원의 용서는 계율이고 한에서의 용서는 인간적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것'[26]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신화를 삼킨 섬』에서 4.3이 낳은 반목과 갈등은 그 뿌리가 깊고 편이 분명하여 상대편으로부터 '원수놈 편'으로 이름 붙여진 혼백은 어느 심방도 넋 굿을 치러줄 수 없는 처지였다. 청죽회와 한얼회가 조사한 희생자의 숫자, 희생 경위가 다르듯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명확히 분별할 수도 없는 마당에 추 심방을 비롯한 제주 심방들은 진정성조차 결여된 사업에 동원되어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자신들도 역사의 피해자인지라 인간적 차원의 용서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종교적 차원의 용서를 종용받은 것이었다. 이때 한얼회나 청죽회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보다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려 했던 제주민의 행보는 굳이 용서를 선택하지 않고도 생의 모순을 수용하고 극복하는 지혜를 보여준 셈이다.

섬 심방 가운데 특별히 눈여겨 볼 인물은 추 심방이다. 제주의 섬 심방을 대표하는 인물 추 심방은 개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집단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무엇보다도 추 심방은 그의 태몽이 암시하듯 아기장수 이

25) 임환모(2009), 위의 글, 130쪽 참조.

26) 권오룡 엮음(1999), 앞의 책, 36쪽.

미지가 오버랩 된 인물이라 신화 모티프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된다. 소설의 초입에서 유정임과 정요선은 신군부가 주도한 '역사 씻기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주도를 방문하는데, 나라가 뒷받침한 큰당집의 주선에 따라 움직이면서도 그들은 가장 먼저 추 심방을 찾아 정중하고 간곡한 태도로 이해와 용허를 구한다. 그것은 단순히 타인의 영업 권역을 침범한 데 대한 양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대표에 대한 예우로서 행한 것이다. 종교 만들기의 한 과정을 '의탁'으로 본 에드워드 윌슨에 의하면,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기 쉽고 예외가 적은 이미지와 정의로 기술하게 될 때, 의탁은 감정적인 자기 복종을 통해 활성화한 순수한 동족 의식"[27]이며 종교가 성립되려면 조문의 번역 의무를 진 무당과 사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신화를 삼킨 섬』에서 비공식적으로나마 무속인들이 공동체의 대표 자격을 얻게 된 것은 제주의 오랜 상처와 갈등을 종교적 차원에서 치유해보려는 섬사람들의 '의탁'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추 심방의 무업은 구체적으로 상처받은 영혼을 씻기는 일이다. 자기 구제의 글쓰기에 집중해온 이청준은 상처받은 영혼을 씻기는 굿이 자기 구제의 글쓰기와 동질의 것으로 보고 "무굿의 주된 기능이 원혼을 씻김에 있음을 상기할 때, 그간의 내 소설질 또한 어느 면 자신의 결핍과 상처를 채우고 위무하는 씻김과 치유의 한 과정이기도"[28] 했다고 술회한 바 있다. 이청준이 해방의 도구로 굿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판소리에 대한 관심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판소리는 신재효의 개작 이후 양반들의 전유물로 성격이 변하였으나 발생 초기에는 평민층을 중심으로 12마당이 형성되었다.[29] 애초의 판소리에는 민중들의 정한과 집단 무의식

27) 에드워드 윌슨(2000), 『인간 본성에 대하여』, 사이언스북스, 261쪽.
28) 이청준(2008), 「나는 왜 어떻게 소설을 써 왔나」, 『신화의 시대』, 물레, 314쪽.
29) 김흥규(1979), 「판소리의 사회적 성격과 그 변모」,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예술과

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특히 호남에 정착한 판소리는 그 지방의 무속음악과 결합되었고, 여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인물들은 무계에 속하는 무부들이었다.[30] 무속과 결합하였기 때문에 판소리에는 서민들의 고단한 삶의 애환과 한, 그리고 소망이 깃들어 있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청준은 「서편제」를 비롯한 '남도 사람' 연작에서 판소리를 말과 삶이 분리되지 않은 순도 높은 존재적 언어로 이해하였다. 더욱이 그는 판소리로 용서와 화해를 모색한 바 있다. "복수를 택하지 않고 수없이 다시 태어나는 고통과 변신을 감내하면서 자기 믿음을 지켜나가는 말들"[31]은 곧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 용서의 구체적인 형식을 판소리로 이해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청준에게 판소리는 말과 실체의 이분법을 넘어서서 말의 자유를 누리는 표현형식으로 간주되었다. 판소리가 개인적 차원에서 한을 풀어내는 양식이었다면 굿은 집단의 원한을 풀어내는 양식이다. 특히 『신화를 삼킨 섬』에서 공동체의 대표 자격으로 심방들이 주재하는 굿은 역사적 폭력에 희생된 영혼의 해원과 치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5. 맺음말

『신화를 삼킨 섬』에 삽입된 아기장수 신화는 제주 4.3과 광주 5.18을 비롯해 오랜 세월 반복되고 누적되어 온 현실의 억압을 암시한다. 오랜 역사가 증거하듯이 고립된 땅 제주 섬은 외래 장수에 의한 구제도, 자생적 운명도 기대할 수 없어 피지배자의 패배가 결정된 공간이다. 이러한

사회』, 민음사, 참조.

30) 정병헌(1998), 「판소리의 형성과 변화」, 국어국문학회 편, 『판소리 연구』, 태학사, 25쪽.

31) 이청준(1988), 「다시 태어나는 말」, 『남도사람』, 문학과지성사, 180쪽.

환경에서 인간이 어떻게 자유의지를 개발하고 실현할 수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 『신화를 삼킨 섬』이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였다.

『신화를 삼킨 섬』에는 아기장수 신화가 액자 형식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이 작품의 내부서사는 4.3 희생자들의 넋을 씻어준다는 명목으로 관이 주도한 '역사 씻기기 사업'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역사 씻기기 사업은 사실상 신군부 세력이 정국의 불안을 잠재우고 권력을 장악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마치 아기장수를 두 번 죽이는 정황과 마찬가지로 기만적인 것이었다.

이청준은 제주 섬에 전해 내려오는 김통정·김방경 설화를 환기하며 제주 섬이 안고 있는 불행의 근원을 좀 더 면밀히 살핀다. 작가의 관찰에 따르면 제주 섬에 낙원이 건설될 수 없었던 원인은 섬사람들이 외래 장수에게 희망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가는 역사적 매듭을 푸는 주체는 섬사람들 자신이어야 한다는 진실을 재삼 확인시킨다. 문제는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대부분이 운명을 타개할 길이 막힌 아기장수의 분신들이라는 점이다. 아기장수는 신성성이 완성된 인물이라서 타계 여행을 통한 시련 극복이 불필요한 캐릭터이며, 아기장수의 운명은 처음부터 실패하도록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력 여하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미천한 가정에서 출생한 데다 비극적 죽음마저 예정되어 있는 아기장수는 소외계급을 상징하는데, 이런 아기장수의 존재는 『신화를 삼킨 섬』에서 섬사람들의 처지를 대변한다. 또한 아기장수의 운명은 제주 섬에 갇혀 운명을 함께해야 했던 4.3의 희생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이청준은 이러한 정황을 직시하는 동시에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결코 종결되지 않는 이야기인 아기장수와 용마 신화 또한 주시하였다. 아기장수와 용마의 신화를 인간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조차 자유의지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거하는 숭고한 정신의 산물로 여긴 것이다. 신군부가

4.3의 역사적 기억을 형식적으로만 봉합하려는 과정에서 제주 섬을 대립적으로 양분하는 결과를 낳았을지라도 작가가 이 속에서 양측을 모두 부인하는 전면적 부정의 정서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한얼회와 청죽회로 대표되는 정치적 단체가 도피 메커니즘에 매몰된 병리적 행동 양상을 보였다면, 관 주도의 위령 굿을 거부하며 제3의 길을 선택한 섬사람들은 지배 권력의 영향권을 벗어나 있어 두 정치 단체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성격을 보인다. 제3의 선택지를 택한 섬사람들은 동일자를 초월한 타자, 즉 스스로 자유의지를 증명한 존재들인 것이다.

요컨대『신화를 삼킨 섬』은 역사 씻기기 사업을 계기로 1948년 4.3항쟁을 회억하는 가운데, 정부의 기만적인 태도와 이에 대한 제주민의 냉담한 반응을 대비시킴으로써 비극의 역사가 여전히 종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아기장수 신화에서 아기장수는 두 번의 죽음으로 운명을 마감하게 되고 신화 속의 관군은 아기장수를 죽여서 초월의 의지까지 제거한 뒤에야 아기장수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았다. 그러나 소설 속의 섬사람들은 아기장수를 다시 기다림으로써 아기장수의 초월 의지, 자유의지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섬사람들이 아기장수의 비극적 운명을 죽음으로 종결시키지 않고 부활의 여지를 남겨둔 것은 권위주의적 가학증에 자유의지로 대응한 것이라 할 것이다.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김통정·김방경 설화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듯이 어떤 절대적 우상의 출현은 우상이 되는 대상의 완전무결함에서라기보다 우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 대상에게 투사한 판타지에서 비롯되곤 한다는 것이다. 김통정과 김방경을 절대적 대상으로 추앙하게 했던 것은 그들의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영웅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이었다. 판타지는 현실의 실상과 마주치게 되면 깨지게 마련이다. 우리는 기대와 절망이 교차했던 역사를 되풀이해서 경험하고

도 또다시 아기장수에게 판타지를 투사하게 되는데, 이청준 식으로 말하면 이러한 행위가 결코 무의미하게 여겨지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야말로 지배 권력에 포획되지 않고 자유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고도로 상징적이면서도 지극히 인간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논문투고일 : 2017년 08월 16일
투고연장일 : 2017년 08월 16일
심사개시일 : 2017년 08월 20일
심사완료일 : 2017년 09월 02일
게재확정일 : 2017년 09월 12일

KCI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이청준(1973), 「소문의 벽」, 민음사.

_____(1976), 『당신들의 천국』, 문학과지성사.

_____(1988), 「다시 태어나는 말」, 『남도사람』, 문학과지성사.

_____(2003), 『신화를 삼킨 섬』, 열림원.

_____(2008), 「나는 왜 어떻게 소설을 써 왔나」, 『신화의 시대』, 물레.

2. 논저

고명철(2002), 「이념의 장벽을 넘어선 4.3소설의 새로운 지평」, 『비평의 잉걸불』, 새미, 328-347쪽.

고인환(2006),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에 나타난 탈식민성 연구」, 『한국언어문화』 제29권, 한국언어문화학회, 109-130쪽.

권귀숙(2004), 「기억의 재구성 과정 : 후체험 세대의 4.3」, 『한국사회학』제38집 1호, 한국사회학회, 107-130쪽.

권수현(2008),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대립 해소를 위한 방법론적 대안 : 데닛의 양립론을 중심으로」, 『철학연구』35, 고려대 철학연구소, 41-71쪽.

권오룡 엮음(1999), 『이청준 깊이 읽기』, 「이청준 권오룡 대담 : 시대의 고통에서 영혼의 비상까지」, 문학과 지성사.

김효명(2008), 「결정론과 자유」, 『철학사상』28,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291-313쪽.

김흥규(1979), 「판소리의 사회적 성격과 그 변모」, 『예술과 사회』,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민음사.

오세정(2006), 「한국신화의 원형적 상상력의 구조」, 『한민족어문학』49, 한민족어문학회, 231-266쪽.

_____(2007), 「한국신화에 나타난 변신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16. 한국고전연구회, 67-96쪽.

이종영(1996), 『가학증, 타자성, 자유』, 백의.

임환모(2009), 「이청준 소설의 지형도」, 『현대문학이론연구』37, 현대문학이론학회, 113-137쪽.

정병헌(1998), 「판소리의 형성과 변화」, 국어국문학회 편, 『판소리 연구』, 태학사.

정흥섭(2003), 「이야기로 풀어낸 역사와 신화화된 이야기 – 황석영의 「손님」과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 『실천문학』, 실천문학사, 312-332쪽.
조명기(2010),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낙원의식과 로컬리티 – 「이어도」「당신들의 천국」 『신화를 삼킨 섬』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73, 한국언어문학회, 333-363쪽.
최래옥(1989), 「아기장사 전설의 연구」, 민족학회 편, 『설화』, 교문사.
한순미(2009), 「역사적 물음을 구조화하는 이미지의 위상학 –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39, 현대문학이론학회, 233-253쪽.

3. 국외 자료

대니얼 데닛, 이희재 역(2006), 『마음의 진화』, 사이언스북스.
에드워드 윌슨(2000), 『인간 본성에 대하여』, 사이언스북스.
에리히 프롬, 원창화 역(2008), 『자유로부터의 도피』, 홍신문화사.
장파, 유중하 외 역(1999),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 푸른숲.

▌국문요약

『신화를 삼킨 섬』에 나타난 아기장수 신화의 문학적 전유 방식

이주미

『신화를 삼킨 섬』에는 아기장수 신화가 액자 형식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청준 소설에 신화나 굿이 등장하게 된 시점은 80년대 이후 작가가 공동체의 운명을 탐색하던 시기와 맞물린다.

아기장수의 운명은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연에 의해 결정되며, 아기장수 신화는 결과적으로 실패가 예정된 결정적 세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신화를 삼킨 섬』의 현실은 아기장수 신화의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진정성이 결여된 사업에 동원될 처지가 된 제주 심방들은 '역사 씻기기 사업'으로 양분된 두 집단 중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려 한다. 신화의 꿈을 종결짓지 않고 자기치유에 나서는 제주 심방들의 행보는 자유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신화를 삼킨 섬』에서 운명공동체로서의 속성을 잘 드러내는 인물들은 섬 심방들이다. 이청준이 굿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판소리에 대한 관심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서편제」에서 이청준은 판소리로 용서와 화해를 모색한 바 있다. 판소리가 개인적 차원에서 한을 풀어내는 양식이었다면 굿은 집단의 원한을 풀어내는 양식이라 할 수 있다.

핵심어 : 아기장수 신화, 운명공동체, 운명결정론, 자유의지, 용서

▌Abstract

Literary appropriation method of The myth of baby Samson in『Island that Swallowed a Myth』

Lee, Joo-mi*

『Island that Swallowed a Myth』 has the myth of baby Samson as a frame story. Taking a look at the time when a myth or a gut in Lee Cheong-chun's novels, his early novels dealt with personal existential issues while those in the 1980s and thereafter explored the fate of communities. The characters that have well revealed the attributes of a community sharing a common fate are none other than island shamans.

The fate of baby Samson is to be determined by accident not by effort. The Jeju shamans are destined to be mobilized into carrying out a project lacking sincerity in inner narration and, at this time, the actions of Jeju villagers seeking to belong to neither of those two groups split due to the 'history washing project' can be considered an expression of free will.

The process of developing interest in gut by Lee Cheong-chun is naturally linked to his interest in pansori, a traditional Korean genre of musical storytelling. In「Sopyonje」, Lee Cheong-chun sought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by means of pansori. While pansori is used as a vehicle to release 'han', spite or resentment,

* Dongduk Women's University

on a personal level, gut is performed in a bid to release grudge or resentment of a group or community.

Key-words : The myth of baby Samson, A community sharing a common fate, Fate determinism, Free will, Forgiveness

KCI